

데스크 시국



채희중 정치·사회담당 편집국장

이제 딱 일주일 남았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 아직도 4·10 총선에서 투표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최악의 후보 떨어뜨리는 선택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재산은 국민 평균보다 5배 이상 많은 부유층이 대다수이다...

은펜칼럼



이병우 유아포인트연구소 대표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의 하나인 '맥베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

기고



양훈 목사·시민

하늘아래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어디 있는가. 전에 있었던 것이 오늘에도 있다...

그놈이 그놈이라도, 투표는 해야 한다

과에 따르면 지역구 출마 후보 699명이 신고한 재산 규모는 총 1조9411억5462만원이며, 1인당 평균은 27억 7704만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적 무관심을 경계하는 문구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말이 있다. 민중운동가 함석헌 선생의 명언으로 전해지는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막말 총선, 후보 옥석 가려야

한발 나아가 덜 나쁜 놈을 넘어서, 덜 사악한 쪽을 뽑으라는 주문도 있다. 이탈리아 정치학자 모리치오 비롤리 미국 텍사스 주립대 교수는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라는 저서에서 "덜 사악한 쪽을 택하라..."

'맥베스'의 교훈과 '조국' 현상

맥스 만세"라는 말을 듣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길을 걷는다. 때로는 현대 정치인도 자신만의 주술적 예측을 굳건히 믿고 실행하기도 한다...

불안한 맥베스에게 위안이 되는 말이 있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마녀의 말이다. "맥베스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거대한 비난의 숲이 던시네인의 언덕을 향해..."

'소유'에서 '배움'으로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에 역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로 컴퓨터가 우리의 두뇌를 대신하게 됐다. 모든 생명들을 복제해내고 유전공학으로 발달시켜 한 나무에서 여러 열매가 가능하게 되고 슈퍼 마우스를 만들어내주고 있다...

엇이든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다 베푸는 일이다. 우리의 이웃에서 아직도 밥을 굶는 민초들에게, 실직하여 파괴되는 가정들에게, 북한 땅에서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에게...

社說

수도권 집중화가 낳은 전남 인구 180만 붐괴

전남 인구가 180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지방 소멸 위기로 예상된 일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 속도가 가팔라 충격적이다...

2000년 213만명이던 전남 인구는 10년만인 2010년 200만명 선이 깨진후 7년만인 2017년 190만명 선이 무너졌고 이번에는 6년여만에 180만명 선까지 붐괴됐다...

남선연탄 폐업, 에너지 취약계층 수급책 절실

광주·전남지역 유일의 연탄 생산 공장인 남선연탄이 그제 폐업했다. 서민들과 함께 7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연탄 공장인 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은 것이다...

1954년 연탄 생산을 시작한 남선연탄은 1980년대 한해에 1억5000만장의 연탄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급격하게 연탄 수요가 감소하며 지난해 판매량은 호황기의 4분의 1(400만장) 정도에 불과했다...

無等鼓

4월, 벚꽃 활날리는 계절이 왔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하기엔 꽃 구경만 한 것이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갑자기 꽃 망울을 터트리는 벚꽃을 기다려 왔다...

벚꽃

그런데 기상청이 벚꽃 개화 시기를 관측하는 것을 보면 뭔가 더 과학적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평범해 재미없다. 기상청은 해마다 계절을 대표하는 여러 생물의 상태를 관측하면서 계절과 지역별 기상 차이를 파악하는데, 이를 '생물계절 관측'이라고 한다...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김汝松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